

경원선 디젤동차 역사의 뒀안길로

이 풍경은 이달을 끝으로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1912년부터 접경지역 주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한 동두천~백마고지 41.3km 구간의 경원선 열차가 오는 31일 마지막 운행에 들어간다.



▲ 서울 용산역에 정차해 있는 경원선 디젤동차. 2021년 지하철 1호선 연장공사를 위해 잠정 운행 중단을 결정한 디젤동차는 내구연한 등의 이유로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22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경원선은 남북이 분단되기 전 서울(경성) 용산역에서 함경남도 원산역까지 왕복 440km를 오갔다. 6·25전쟁 후 최북단역은 연천 신탄리역이 됐다가 2012년 한역을 연장해 백마고지역이 됐다. 서울 용산역에서 백마고지역까지가 현재 경원선 노선이다.

그동안 용산~동두천 구간 열차는 전동차나 고속열차(KTX)로 바뀌었고 그에 맞춰 철로도 변했다. 하지만 동두천~신탄리 구간은 107년 전 닦은 노반 위 철로에서, 107년 전과 차종은 다르지만 똑같이 검은 연기를 내뿜는 열차가 달리고 있다. 이 열차는 1996~1999년 한국철도공사(코레일·당시 철도청)가 통일호나 비둘기호로 쓰기 위해 도입한 디젤동차(CDC)다. 증기기관차, 디젤기관차의 뒤를 이은 디젤동차는 KTX의 등장으로 통일호가 퇴역한 2004년까지 전국을 누비다 경원선 통근열차가 됐다.

천장에 낡은 선풍기가 돌고 좌변기

가 아닌 쪼그려 앉아 일을 보는 화장실에 현기증이 일 때도 있었지만 열차표를 못 샀더라도 객차를 도는 여객전무에게 돈을 내면 살 수 있는 훈훈함이 매력이었다. 휴가 가는 군인에게는 꽃마차였고 요금이 1,000원이라 '싸다싸(CDC)'라는 애칭도 얻었다. 그동안 코레일은 동두천~백마고지 구간에서만 발생하는 매년 약 110억 원의 손실을 감수했다.

하지만 6·25전쟁과 2011년, 2018년 수해 때 말고는 쉬지 않던 옛 통일호 열차가 이제 곧 멈춘다. 2021년까지 지하철 1호선을 소요산역에서 연천역까지 연장하는 공사를 위해서다. 그동안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대체버스가 다음 달 1일부터 역할을 대신한다. 공식적으로 잠정 운행 중단인 디젤동차는 내구연한(20년)과 비용,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장년층, 간편식 시장 '큰 손'으로 부상

20·30대 젊은 층과 1~2인 가구를 겨냥한 간편식(HMR) 시장에 40·50대 중·장년층이 큰손으로 부상하고 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 사이트 G마켓에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즉석밥·국·카레와 같은 간편식 매출을 분석한 결과 40·50대의 매출 신장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배, 152%에 달했다. 이는 전체 연령대를 아우른 매출 신장률 91%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40·50대가 선호하는 간편식 매출은 즉석밥·찌개·짬뽕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27%, 볶음밥·비빔밥·컵밥류가 272% 각각 더 팔렸다. 이 외에도 덮밥·덮밥소스(57%), 누룽지·죽(198%), 즉석밥(19%), 통조림(111%), 라면·컵라면(164%), 만두(170%), 피자·햄버거(341%), 떡볶이(262%) 등 종류를 불문하고 간편식이 두루 중·장년층의 사랑을 받았다.

G마켓 관계자는 "40·50대 세대가 왕성하게 사회생활에 참여하면서 시간은 물론, 체력면에서도 식사를 준비하는데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풀이 된다."며 "손쉽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간편식을 많이 찾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거 '레토르트 식품' 등으로 치부되

던 간편식 시장이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간편식 시장은 해동·가열을 넘어 간단한 조리 과정을 넣은 '밀키트' 시장으로도 확대되는 중이다.

CJ제일제당이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취식 메뉴 데이터 30만건, 전국 5천여 가구 가공식품 구매 기록, 온라인 거래 기록 5천200만건 등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간편식 시장이 모든 세대로 확산하는 추세가 확인됐다.

CJ제일제당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소비자는 평균 10끼 가운데 3.9끼를 혼자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혼밥'의 41%를 간편식이 차지했다.

중·장년층은 특히 지난해 즉석밥·국물 요리·냉동만두·조리 냉동 등 모든 식품 분야에서 2016년보다 간편식을 더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냉동만두와 조리 냉동 간편식이 중장년층 가구의 64%, 58%에 각각 들어간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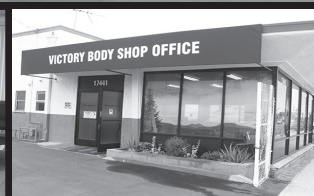
빅토리 바디샵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일단, 전화 먼저 주세요!!)
- ✓ Lease Return
- ✓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
- ✓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
- ✓ Towing & Rent Car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Email: victoryautobody@gmail.com

